

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ESG경영 실천

△ 의령/ 최판균기자 | ㉠ 승인 2021.08.11 16:38

싱크대·장판 등 노후 부분 개선 구슬땀

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의령지사는 전날 의령읍에 위치한 가구를 방문해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. [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제공]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 의령지사는 전날 의령읍에 위치한 가구를 방문해 농촌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.

농어촌 집 고쳐주기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솜동지복지재단이 함께 지역 농어촌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나눔 실천 활동이다.

의령지사 직원들은 불별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주택의 싱크대·장판 등 노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.

의령	당부	정지	지사장	월	일
김민서	강두원				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.

[전국매일신문] 의령/ 최판균기자
chpag@jeonmae.co.kr

저작권자 © 전국매일신문 -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'한눈에'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의령/ 최판균기자